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4호 [무게 제25793호] 주제 106(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상건 72돐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우리 당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국방위에 장성민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정도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대하가 단수대인력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된 뜻의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로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상건 69돐에 즈음하여 축전과 축하전지를 보내어 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말리공화국 대통령,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콩고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튀니지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 에리트리아공화국 대통령,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재일조선여성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자나깨나 꿰고싶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제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 기념 중앙대회에 참가한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없이 인자하신 자애로운 영성을 우러르며 전체 동맹원들과 동료여성들의 불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도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희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일진단심과 애국환향을 누구보다 깊이 새겨서 주고 남모르는 고초까지 다 알아주시어 자애로운 한숨에 안아주시었으니 하해와 같은 그 은총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동맹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 행동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5대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세 새대를 비롯한 동포여성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참다운 단결동맹가,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켜왔습니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 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마흐무드 아바스 2017년 10월 10일

##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70돐 기념 중앙대회 참가자일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필승의 보름을 안겨 주셨으니 저희들은 용기있게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공적전에 신약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발걸음도 승걸도 같이하며 애국충정의 한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필승의 보름을 안겨 주셨으니 저희들은 용기있게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공적전에 신약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발걸음도 승걸도 같이하며 애국충정의 한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필승의 보름을 안겨 주셨으니 저희들은 용기있게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공적전에 신약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발걸음도 승걸도 같이하며 애국충정의 한길을 더욱 역세게 걸어나가겠습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행사참가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